

1920~30년대 음악 전문 여성선교사  
- 미북장로교 선교부 파송 주요 선교사를 중심으로 -

김 사 랑

1. 여성, 선교사, 전문 음악가
2. 음악 전문 선교사의 내한
3. 3인의 음악 전문 여성선교사의 활동
  - 1)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
  - 2) 다양한 음악활동으로의 확장
4. 음악 실천의 이면 훑어보기

## 개 요

폭발적인 수적 증가세를 보였던 기독교계 학교들이 1910년을 전후로 체계화되기 시작하며 교사 선교사들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서양음악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 또한 매우 컸던 만큼 전문적인 음악 교원의 필요도 늘어가던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21년에 내한한 3인의 여성선교사이자 음악전문가인 루츠(Ernice Lenore H. Lutz, 1886-1979), 부츠(Florence E. S. Boots, 1896-?), 솔토(Grace Blanch Z. Soltau, 1886-?)의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일정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획득한 인물들로, 미북장로교 선교부로부터 파송되어 내한 초기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음악적 영향력을 확장해 갔다. 이들에 대한 1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교 및 교회 교육, 개인 지도 이외에 자신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양성, 합창 운동과 성가대 육성, 다양한 무대 활동, 관현악단 창단에 이르기까지 그 활약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드러난다. 게다가 음반 취입에 관여하고 한국인의 유학에 중요한 매개로 역할 하였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다. 이들의 활약은 초기 한국 양악계의 전반을 그려볼 수 있는 편린(片鱗)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선교사의 영향력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행위는 일반 선교사들과는 또 다른 문화적 상징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일상 속에서 교육의 주체로, 시청각적 문명의 상징으로 역할 했던 여성선교사들의 활동은 음악문화 지형 변화에 토대를 형성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서술의 편협성이란 그들에 가려져 있던 그녀들의 활약상이 근대 양악사(洋樂史)의 밑그림을 재편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선교사, 전문 음악가, 루츠, 부츠, 솔토, 근대 음악사, 서양 음악, 일상화, 미북장로교

## 1. 여성, 선교사, 전문 음악가

1884년부터 1940년까지 내한했던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 여성은 약 60%를 차지했으며,<sup>1)</sup> 교육, 의료,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했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사(敎會史)가 남자 선교사들의 업적에 치중하고 있어 소외된 여성의 자리는 대다수 여성선교사들의 풀네임(full-name)마저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 다만 여성학 연구서들에서 여성선교사들의 활약이 한국의 여성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인 입지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sup>3)</sup> 남성중심의 역사서술은 양악사(洋樂史) 분야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 여성선교사들 상당수가 음악교육에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묻힌 여성관련 연구는 여전히 그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sup>4)</sup> 이에 본

- 
- 1) 김일심, “내한 여성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 1945년 이전을 중심으로-,”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07) 13-14.
  - 2) 결혼 후에 내한한 부인선교사와 독신으로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전문여성선교사들은 대다수가 성경 및 전공 영역의 교사로 투입되었고 일부 전공에 따라 의학계에 종사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강선미의 『한국의 근대초기 페미니즘 연구』, (푸른사상, 2005)를 참조.
  - 3) 강선미, 『한국의 근대초기 페미니즘 연구』 (푸른사상, 2005); 김성은, “엘리스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의 선교활동과 한국여성교육,” 『역사학연구』 48 (2012), 175-199; 김성은, “한말 일제시기 엘라수 와그너(Ellasue C. Wagner)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41 (2014), 115-152; 류대영, “매티 노블(Mattie W. Noble)의 일지: 한 부인 선교사의 삶과 “여성의 영역(Women’s Sphere),” 『동방학지』 160 (2012), 211-253; 윤정란, “19세기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 -여성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史林』 34 (2009), 105-134; 이윤미, “식민지 초기 여성선교사의 교육 활동,” 『한국교육사학』 29/2 (2007), 87-118; 정미현,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의 선교 사역과 여성의식,” 171 (2015), 223-251.
  - 4) 여성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김사랑의 “내한(來韓) 선교사의 음악 활동에 관한 연구,”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07); 김일심의 “내한(來韓) 여성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 1945년 이전을 중심으로-,”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3); 허지연의 “이화

논문은 그간 빛을 보지 못했던 몇몇 여성선교사들의 음악활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근대의 음악문화는 일상의 영역에서 여성과 그 관련성이 더욱 밀접하다. 19세기 유럽 자본주의의 발달이 부르주아 형성과 더불어 악기의 대량생산 및 음악향유의 대중화를 불러오면서 소위 살롱음악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중산층 가정에 일반적으로 보급된 피아노는 가정 음악을 상징하게 되었고, 피아노 연주는 중산층 여성들의 교양으로 인식되기 이르렀다. 내한했던 여성선교사들은 대부분 중산층으로써 이러한 19세기 유럽 음악문화의 영향 하에 성장했던 사람들이다.<sup>5)</sup> 어린이와 여성 교육이 선교 역사적으로 여성의 일이기도 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음악적 토대 변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그룹이 여성 선교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물론 초창기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은 상당부분 아마추어적이었다. 선교부도 선교 지원자들에게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거나 찬송을 인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음악적 수준을 기대했을 뿐이다. 그러나 1900년대 전후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1910년대부터 기독교 학교 체계가 규모 있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은 음악을 비롯한 여러 교과와 고등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전문 교사에 대한 필요로 이어졌고 1910년대 중반부터 미감리교회 해외여성교회(The Women's Foreign Missionary

---

여자전문학교 선교사 음악교사 연구: 연합감리교회아카이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음.악.학』 25 (2013), 21-123; 허지연, “미국인 선교사와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한국 근대 양악사의 ‘한국 뛰어넘기,’” 『음.악.학』 23 (2012), 89-124. 등이 있다.

- 5) 당시 선교에 투신했던 여성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농촌 출신의 대학 졸업자로 비교적 가난한 중산층 출신이었다. 강선미, 『한국의 근대초기 페미니즘 연구』 참조.
- 6) 박보경, “The Great Century에 있어서의 여성선교사의 사역과 영향,”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0); 류대영, “매티 노블(Mattie W. Noble)의 일지: 한 부인 선교사의 삶과 “여성의 영역(Women's Sphere),” 『동방학지』 160 (2012), 211-253. 참조.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이하 WFMS) 소속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유치원 전문교사, 음악 전문교사 등이 내한하기 시작한다.<sup>7)</sup> 장로교단의 경우 이보다 늦은 1920년대 초부터 음악을 전공한 선교사들이 내한한 것으로 확인된다.

3인의 여성선교사 루츠(Ernice Lenore H. Lutz, 1886-1979)와 솔토(Grace Blanch Z. Soltau, 1886-?), 부츠(Florence E. S. Boots, 1896-?)는 1921년 미북장로교 파송으로 내한한 음악전문가로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한국 1세대 음악인을 다수 배출한 평양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약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가 갖는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20-30년대 미북장로교 해외선교부(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파송 선교사이자 음악 전문가였던 이들 여성 선교사의 음악적 실천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아카이브,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이하 PHS)를 방문해 선교사들에 대한 개인 자료(collection)들을 입수하였다. 이들이 남긴 글들과 보고서, 편지 등 1차 자료들과 국내 기사들을 살펴 음악과 관련된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전의 연구와 국내 자료로는 정확한 이름과 사역의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존재들이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 20-30년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음악계의 현장을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악사의 현재를 재조명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7) 그레이스 하몬(Grace Harmon), 브라운리(C. G. Brownlee) 등이 초기 내한한 전문가들로, 이들은 일찍부터 음악교육에 공을 들인 이화전문학교에서 일을 하였다.

## 2. 음악 전문 선교사의 내한

### 1) 음악 전문 선교사의 출현

“Can you play the piano or organ? Can you lead in Singing?”<sup>8)</sup>

위의 문장은 선교사 허입을 위한 지원서의 질문 가운데 하나로, 선교사들에게 음악적 재능은 중요한 요소이자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었음을 나타낸다. 초창기 선교사 상당수가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지도하고 예배를 이끌며 한국인들의 음악적인 토대와 취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1915년 4월 *Korean Mission Field* (이하 *KMF*)에서 음악을 특집으로 다루게 된 것도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인식했던 선교사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기고자를 살펴보면, [표 1]<sup>9)</sup>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대체로 음악에 조예가 깊거나 오랫동안 취미로 음악활동을 했던 선교사들의 의견이었다는 점에서 1910년대까지의 기독교 학교 음악교육은 아마추어적이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음악적인 견해와는 별개로 음악적 스킬이나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8) PHS에서 입수한 미북장로교 해외선교부(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의 선교사 허입 신청서(application)는 34개의 질문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위의 질문은 6번째에 해당한다.

9) 김승태·박혜진,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허지연, “이화여자전문학교 선교사 음악교사 연구: 연합감리회아카이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음.악.학』 25 (2013);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https://kmc.or.kr/dic-search>);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PC(USA) (<http://tb.history.pcusa.org/dbtw-wpd/Textbase2/Missionary%20query2.htm>);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rchival Catalog (<http://catalog.gcah.org:8080/exist/publicarchives/gcahcat.xql?query=>)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 1] KMF 1915년 4월 음악특집호 기고자 명단

이름 (교단)	재임기간	전공	음악활동
J. D. Van Buskirk (M)	1908-1932	의학	전통 음악에 관심
Mrs. V. H. Wachs (M)	1911-1926	음악교육	교회 및 여학교 음악교원
Grace H. McGary (M)	1911-1915	성경, 음악	이화여학교 음악교원
Wm. C. Kerr (NP)	1908-1953	신학	찬송가 공의회에 관여
E. M. Mowry (NP)	1909-1950	신학, 생물학	송실 밴드부 및 합창대 창단
Paul L. Grove (NP)	1910-1920	신학	『창가집』 편집
Alex A. Pieters (NP)	1904-1941	신학	『찬미가』 편집 관여
Mrs. W. M. Baird (NP)	1891-1916	교양	『창가집』 편집 및 발행 찬송가 편집 관여
A. F. DeCamp (NP)	1910-1928	신학	주일학교 및 어린이 사역에 관여

\* M - Methodist, NP - North Presbyterian

음악적 전문성을 지닌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내한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로, 학교 음악교육이 체계적으로 전개된 때와 일치한다. 이는 선교사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한국 학생들의 요구가 맞물린 측면이 있다. 음악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점차 커졌다는 사실은 선교사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솔토는 그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면서 당시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전했다.

한국인들을 위한 저의 사역은 주일 학교 교육, 기관이나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한국인들은 서구 음악을 배우고자 열망합니다), 성경 공부 등입니다. 이곳[평양]에는 남자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음악과(music department)가 개설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배우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sup>10)</sup>

위의 글에서 눈여겨 볼 점은 대학교 음악과(music department) 개설에 대한 언급이다. 당시 송실 교원으로 일한 그레이스 솔토는 평양 송실의 음악과 개설을 희망하였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열망이 대학 음악과 신설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화전문학교 외에는 음악과가 개설된 대학이 전무한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선교사들도 인식하였던 것이다.<sup>11)</sup> 그 외에 본국으로 전달된 보고서에 의하면, 미북장로교 선교부 소속 중등학교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서구 음악에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교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총독부가 발표한 사립학교규칙의 기준이 전문 교원 충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915년에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은 급성장하던 기독교 학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sup>12)</sup> 표면적으로는 자산, 설비, 교원 자격 등의 기준을 체계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사실상 성경교육과 종교의식을 포기해야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학교의 설립취지를 삭제

---

10) Grace Soltau,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June 19, 1925.

11) 평양 송실은 선교부에서 논쟁점이 된 이른바 대학문제와 본국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음악과 신설은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9년에 음악가 말스베리를 초빙하는 등 전문음악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가 컸다는 점은 분명하다.

12) 일본 총독부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시작으로 인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기독교 학교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1911년에는 ‘사립학교규칙’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① 학교의 설립과 폐쇄, 학교장 교원의 임용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을 것, ② 수업연한, 교과서, 교육과정 및 수업시수, 학생정원, 학년, 학기, 입학학생에 대해 총독부의 허가를 받을 것, ③ 총독부가 편찬하거나 총독부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하며, ④ 상기 법령을 위반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학교장과 교원의 해고를 명령할 수 있다 등이다.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은 이보다 더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성경교육과 종교의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교육윤리연구실 편, 『한국 근현대 교육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88-89.

하고 총독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였다. 일제의 요구를 수용하였던 감리교와 달리, 성경교육과 예배 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장로교는 한동안 불이익을 감수하다가 1922년 새롭게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에 포함된 ‘지정학교(指定學校)제도’를 따르게 된다. 이는 이전의 ‘개정사립학교규칙’의 좀 더 완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학무국에서 파견된 시학관의 실사 뒤 기본재산, 학교설비, 자격 있는 교사진 등 일정 요건이 확인된 각종학교를 지정학교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지정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면 성경교육과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졸업생이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sup>13)</sup>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거부하고 종교교육을 고수했던 미북장로교 선교부는, 1922년 다소 완화된 지정학교 제도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sup>14)</sup> 학생들이나 한국인 이사진들이 인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sup>15)</sup> 결과적으로 자격을 갖춘 교사들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중등학교들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주로 가창위주로 진행됐던 음악교육 또한 주요 기독교계 중등학교들을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경향

13) “耶蘇敎學校 感謝 希望,” 『동아일보』 1923.01.07. 지정학교법에 따라 성경교육과 종교의식이 허용된 것은 북장로교 선교부로서는 중등교육 사업을 전개시키는데 좋은 출구가 되었다. 감리교는 1915년 사립학교규칙에 따라 ‘고등보통학교’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 성경수업과 예배를 방과 후에 실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데 반해, 장로교는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종교교육을 폐제하는 고등보통학교의 길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던 미북장로교 선교부 관할 중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4) 고등보통학교로 승인을 받지 않았던 이유로 졸업생들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신입생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박해진, “1920~30년대 미북장로회선교부 관할 중등학교 운영과 한국인 인계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12), 25-29.

15) 이에 대한 논의는 박해진, “1920~30년대 미북장로회선교부 관할 중등학교 운영과 한국인 인계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12) 참조.

이 나타난다.<sup>16)</sup> 그 중심에 음악을 전공한 선교사들도 역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20년대 내한했던 음악 전공 선교사들이 대부분 내한 이전부터 교사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sup>17)</sup> 두 번째 음악특집호로 꾸며진 *KMF* 1938년 4월호 기고자들의 면면은 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15년 특집호의 기고자들이 모두 비전공자로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음악교육에 참여하였던 것에 비해, [표 2]<sup>18)</sup>에서 보듯 1938년 4월호 기고자들의 대부분이 음악을 전공한 전문 음악인이었다. 이화여전의 음악교원 매리 영(Mary E. Young, 1880~?) 베이커(Catherine Baker, 1879~1972) 등을 비롯해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여성 선교사인 부츠와 루즈도 글을 기고하였다.

[표 2] *KMF* 1938년 4월 음악특집호 기고자 명단

이름 (교단)	재임기간	전공	음악활동
Mary E. Young (M)	1919-1040	음악	이화여전 교수
Catherine Baker (M)	1927-1940	음악	이화여전 교수
Mrs. J. L. Boots (NP)	1921-1939	음악	평양외국인학교, 이화여전 등의 강사
Mrs. D. N. Lutz (NP)	1921-1960	음악	평양송실, 평양남녀신학교 강사
Mrs. H. A. Rhodes (NP)	1908-1946	음악	연희전문 강사, 연희 오케스트라 지도

16) 선교부가 설립한 기독교 학교들의 음악교육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제 1회 전조선여자중등학교 현상음악대회에 참여한 학교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성악과 바이올린 피아노 등의 기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참여한 학교는 공주의 영명, 개성의 호수돈, 평양의 승의, 원산의 루씨, 함흥의 영생, 경성의 배화와 이화 등 모두 기독교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全朝鮮女子中等學校 顯賞音樂大會는 明夜,” 『동아일보』, 1934.06.01.

17) 본 논문에서 다루는 루즈와 솔토, 부츠 등은 내한하기 이전부터 개인레슨을 하거나 교회나 기관, 학교 등에서 음악교원으로 활약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18) 참고자료는 [표1]과 동일.

이름 (교단)	재임기간	전공	음악활동
Allen D. Clark (NP)	1933-1941	?	아내인 Eugenie이 평양외국인 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침.
Kim In-Sik		음악	초창기 한국인 음악교사
Mrs. R. K. Smith (NP)	1911-1950	식물학	음악 관련 글 기고
W. J. Anderson (NP)	1917-1942	?	찬송가 출판, 음악 관련 글 기고
C. A. Sauer (M)	1921-1962	교육 (유치원)	영변의 승덕학교, 승덕여학교, 유치원 교육

위의 표에서 당시 음악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이화여전, 숭실전문, 연희전문, 평양외국인학교, 유치원 등의 음악 전문 교사 선교사들이 기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을 전후로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이 음악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 다양한 활동을 한 인물이 루츠와 솔토, 부츠이다. 이들의 삶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음악을 전공한 세 여성, 선교사가 되다.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루츠, 부츠, 솔토는 모두 1921년 한국 땅을 밟는다. 셋 모두 결혼 이전부터 활발한 사회적인 활동으로 자신들의 전공 영역이나 교회 사역에 이력을 쌓았다. 미국 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매우 제한적인 시대였던 만큼, 이들 여성 선교사들은 남다른 성취욕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름	Ernice Lenore H. Lutz (Mrs. Dexter N. Lutz, 1886-1979)	
내한 시기	1921-1960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berlin Kindergarten Training School (1909)</li> <li>• Oberlin Conservatory of Music (3 years)</li> <li>• Special Study of Music (1912-1920)</li> </ul>	
선교사 파송 이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structor in Kindergarten and Music, Hilo Hawaii (1910-1911)</li> <li>• Teacher in Public School in Ohio (1912-18)</li> <li>• Instructor in Voice and Chorus Singing, Morey School of Music, Ohio (1916-21)</li> </ul>	

오하이오 출신의 루츠(Ernice Lenore H. Lutz, 1886-1979)는 1921년 입국해 1960년까지 한국에 머물렀던 선교사로 음악과 유치원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1918년 텍스터 루츠(Dexter N. Lutz)와 결혼한 뒤 곧바로 내한한 그녀는 해방이전까지 평양에서 주로 머물며 학교 음악교육과 유치원 교육에 힘썼다. 루츠의 학력과 이력에 관련한 내용들은 PHS에 보관된 선교사 허입지원서와 그 외 관련 서류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루츠는 장로교 성직자들과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sup>19)</sup>의 유치원 보육 과정(Kindergarten Training School)을 1909년에 졸업한 뒤 오벌린 대학과 콘서바토리(Oberlin College and Conservatory of Music)에서 3년 간 수학하였다. 콘서바토리 졸업이후 1912부터 1920년까지 9년간 음악을 공부하였다고 이력서에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기관이나 전공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이 기간 중에 음악교사로 재직하였다는 점에서 대학교가 아닌 학원 등의 기관에서 음악 공부와 일을 병행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sup>20)</sup>

19) <http://new.oberlin.edu/about/history.dot>, 검색일: 2016.08.09.

20) "Application\_ MRS. DEXTER NATHANIEL LUTZ (Ernice Lenore Harpster)," May 11, 1920.

루츠가 선교사의 삶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결혼 전에 단기 자원봉사자로 파송되었던 이력을 보아 선교에 대한 열망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1909년 연합복음주의의회(United Evangelical Board)의 파송으로 중국에 머물렀으나 이듬해 봄 사역이 철수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하와이로 건너가 유치원 교사로서 1년을 보내기도 했다. 그 후 몇 년 간 교회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음악교사로 활약하였는데, 강하고 지력이 넘치는 리더십으로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고 평가받기도 하였다.<sup>21)</sup> 루츠는 음악이나 유치원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에 열정을 보였는데, 해방 이후의 루츠의 삶은 음악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사에 가까운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태평양전쟁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 머물다 다시 내한하여 잠시 동안 이화여전의 강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루츠는, 대구 선교부로 부임한 뒤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학교를 비롯하여 장애인 마을을 만들어 그들의 교육과 생계를 위해 헌신하였다. 루츠의 인생 궤적은 음악가이자 교사로서의 성취감 뿐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그녀의 삶을 이끌어 간 가장 큰 원동력으로 보인다.

이름	Grace Blanch Z. Soltau (Mrs. David L. Soltau, 1886- ? )	
내한 시기	1921-1929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rthwestern University (1906-1907)</li> <li>• University of Washington (1909 졸업)</li> <li>• Elquin College of Music</li> </ul>	
선교사 파송 이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ano, voice, pipe organ 개인지도</li> <li>• University of Washington 오케스트라 및 합창반주, 피아노 개인교수 (1907-1909)</li> <li>•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Fine Arts Dept. 피아노 전임강사 (1909-1914)</li> </ul>	

21) "Lutz, Lenore Harpster (Mrs. D. N. Lutz)," December 09, 1955.

일리노이에서 자란 솔토(Grace Blanch Z. Soltau, 1886-?)는 1921년 내한하여 1929년까지 평양에서 주로 활약한 미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이다. 남편인 데이비드 솔토(David L. Soltau)는 1917년부터 내한해 사역을 하였던 선교사로, 그레이스 솔토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녀는 1904년 엘퀸 아카데미(Elquin Academy)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1906-1907)에서 수학한 뒤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음악을 전공, 1909년 졸업하였다.<sup>22)</sup> 이외에 엘퀸음악대학(Elquin College of Music)에서 수학하였다고 확인되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정확한 세부 전공 또한 언급이 없지만 학업 이후에 피아노, 성악, 파이프 오르간 교사로 일했던 경력으로 보아 음악교육 전공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스웨스턴대학에서 1895년부터 교사를 위한 2년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sup>23)</sup> 다만 1909년 워싱턴대학 졸업 이후 같은 학교 음대(School of Music)에서 피아노 전임 강사로 일했던 경력을 미루어 보아 워싱턴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발견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솔토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택했는지, 선교사로서 어떤 평가를 얻었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한 차례 안식년으로 방문했던 미국 생활에 대한 그의 기록은 선교사보다는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1927년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낸 솔토는 시카고에 머물면서 시카고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퍼시 그레이ن저(Percy Grainger, 1882-1961), 알렉산더 랩(Alexander Raab, 1882-1958), 험버트 위더스푼(Herbert Witherspoon, 1873-1935) 등의 강의를 듣고 여러 수업을 청강했던 경험을 편지글에 기술하고 있다.<sup>24)</sup>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음악적 경험에 대한 언급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음악가

22) "APPLICATION" of Soltau, Grace Blanch Z.

23) <http://www.music.northwestern.edu/about/history/timeline.html>, 검색일: 2016.08.09.

24) Mrs. David L. Soltau, "Dear Friends," May 19, 1928.

로서의 자의식이 컸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름	Florence Elsie S. Boots (Mrs. John L. Boots, 1896- ? )	
내한 시기	1921-1939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oucher College (2 years)</li> <li>• Beaver College, Geneva College in Music department (6 years)</li> <li>• Music School in Beaver College (1916 졸업)</li> </ul>	
선교사 파송 이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올린,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 등 개인지도</li> <li>• Langelos school 음악교사</li> <li>• 교회 Pipe organ 주자</li> </ul>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부츠 선교사는 미북장로교 선교부 파송으로 1921년에 내한하여 1939년까지 다양한 음악적 행보를 보인 선교사이다. 남편인 존 레슬리(John Leslie Boots)가 세브란스에서 치과의사로 일했던 관계로 경성에서 주로 머물며 활약하였다. 주요 사역지가 평양이 아닌 경성이었지만 미북장로교 파송 전문 음악선교사로서 우리 음악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평양에서의 활동도 적지 않았다는 점, 루츠와의 교류를 통해 평양과 경성의 연결고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본 논문에서 다뤄야 하는 주요 선교사로 꼽은 이유가 되었다.

개인 보고서에 의하면, 부츠는 미북장로교회 계열의 대학인 비버대학(Beaver College)과 제네바대학(Geneva College)의 음악부에서 6년간 수학하였고 1916년 졸업하였다. 음악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있던 제네바 출신인 만큼 선교사 파송 이전에도 주로 개인교습, 학교 교육에 관여했던 부츠는 한국에서도 주로 학생들을 만나며 음악적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특히 바이올린,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룰 수 있었던 부츠는 관현악단, 반주, 교회 음악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부츠는 평양의 외국인 학교, 이화여전 등의 학교 교육 이외에 중앙악우회 등의 연

주 단체 활동에도 관여하였고, 다양한 무대에서 교단과 상관없이 가장 활발하게 연주했던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이 확인된다.

### 3. 3인의 음악전문 여성선교사의 활동

#### 1)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

##### a. 평양 내 주요 기독교학교

1920-30년대에든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수가 상대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음악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다만 내한한 선교사들의 수에 비해 세워진 학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사 수급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 1921년에 내한한 루츠와 솔토가 평양 선교기지로 부임하자마자 송실, 승의 등 주요 학교 교원으로 투입된 것은 그만큼 필요가 상당했기에 가능했다.<sup>25)</sup>

평양의 송실학교는 1세대 음악가들이 거쳐 가는 기착지의 역할을 하였다. 주목할 점은 평양 송실을 거쳐 간 1세대 음악가들 가운데 몇몇이 자신들의 음악 입문과정, 또는 송실의 음악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솔토, 루츠 등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루츠와 솔토가 공식적으로 송실에서 음악을 가르쳤다는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송실 백년사나 선교본부로 보내진 송실 관련 보고서에도 교수진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악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개인교습을 위주로 교육할 수밖에

25) 본국 선교부로 보내진 승의여학교의 1921-22년의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 음악교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Pyng Yang Academy for Young Women, Annual Report 1921-1922”, “Annual Report of Pyengyang Academy for Young Women 1920-1921” 등.

없었던 현실은 공식적인 문서에서 이들의 명단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솔토와 루츠의 영문 문서들에서 이들이 송실 중학과 송실 전문에서 음악교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솔토가 1927년 본부에 제출한 자신의 개인기록에 의하면 선교사로 부임한 첫 해인 1921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송실전문학교(Union Christian College), 송실중학(Boys Academy), 송의여학교(Girls Academy), 평양외국인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기술하였다.<sup>26)</sup> 루츠 역시 송실중학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The Korea Herald* 1967년 1월 11일자 기사에 소개된 루츠의 사역과 업적을 살펴보면, 그녀가 평양의 여학교와 신학교 뿐 아니라 평양의 대학(송실)에서도 일했음을 적고 있다.<sup>27)</sup> 또한 루츠의 이력서 또한 평양 소재 대학(송실)에서 음악(성악)을 가르쳤음을 밝혀 위의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sup>28)</sup>

(그림 1) 송실의 음악부원들과 그레이스 솔토



26) Grace B. Soltau, "Personal Record," January 15, 1927.

27) *The Korea Herald*, 1967.01.11.

28) "Lutz, Lenore Harpster (Mrs. D. N. Lutz)," December 09, 1955.

이들이 송실전문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해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1920-30년대 당시 송실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 때 음악 수업이 교양수업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수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음악부를 운영하여 합창단, 오케스트라, 밴드 등 학과 수업 이외의 활동을 통해 음악을 배우고 동시에 대외적인 연주가 가능했던 체계였다. 이 때 필요한 개인의 기술연마를 위해 여성 선교사들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보다 심도 있게 지도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솔토와 루츠의 경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적임자에 해당했던 것이다. 이들과 인연을 맺었던 학생들 가운데 1세대 음악가로 성장했던 인물들은 현제명, 김형준, 박경호, 김세형 등이다. 1924년에 송실대학을 졸업한 현제명은 솔토에게서 피아노를 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29)</sup>, 피아니스트 박경호는 평양에서 솔토 부인으로부터 음악의 토대를 잡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sup>30)</sup> 또한 김세형은 솔토에게서 피아노를, 루츠에게서 성악을 배우며 음악가의 꿈을 키웠다고 회고하였고,<sup>31)</sup> 김동진은 말스베리에게 주로 음악을 배웠으나 루츠에게 성악을 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sup>32)</sup>

송의여학교의 당시 음악 교육 상황은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1920년대 초반부터 동창회 주최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연주에 참여할 만큼 음악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음악회에서 얻은 수익으로 피아노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선교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음악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충당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다.<sup>33)</sup>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송의합창단이

29) 『경향신문』, 1960.10.17.

30) “樂界의 新人三氏,” 『동아일보』, 1932.12.04.

31) 『경향신문』, 1983.10.01. 김세형 인터뷰 기사.

32) 송실인문사편찬위원회 편, 『인물로 본 송실 100년』 (송실대학교출판부, 1992), 331.

33) “崇義教音樂會盛況,” 『동아일보』, 1921.06.13.

평양 내의 각종 청년음악회에 꾸준히 참여하였다는가 음악경연대회에 송의 출신 학생들이 수상하는 등의 여러 활약상을 찾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솔토가 미북장로교 선교부로 보낸 편지에 송의여학교 방문기를 적으면서 음악교육과 관련된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응접실과 담화실에 오르간과 피아노 여러 대가 보입니다. 다수의 여학생들이 음악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교습이나 콘서트 프로그램 덕분에 꽤나 그럴듯하게 노래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sup>34)</sup>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응접실과 담화실 등은 학생들이 개인교습을 하거나 학기에 한 번씩 연주회를 열어 자신의 같고 닮은 실력을 평가받는 자리로 활용되었다. 즉 음악교육의 기본 내용이 개인교습을 통한 훈련과 리사이틀을 통한 무대 경험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솔토가 송의여학교의 음악교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기술 가능한 내용이었는데, 그녀와 관련된 문서 곳곳에서 송의여학교에서의 이력을 발견할 수 있다. 1926년 본국 선교부로 보낸 개인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평양으로 파견된 1921년부터 송의여학교(Girls Academy)의 음악교원으로 바로 투입되었다.<sup>35)</sup>

루즈와 솔토는 송의여학교의 음악교원이었을 뿐 아니라 동교 유치원 사범과<sup>36)</sup>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루즈는 송의여학교 유치원 사범과의 전반적인 교육과 행정에 투입되었고, 솔토는 교원들의 피아노 교육을 위해 미국 교재의 번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崇義九十年史』에 의하면,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기까지 송의여학교 사범과 학생들은

34) Grace B. Soltau, "Dear Friends," June 19, 1925.

35) "Personal Record of Grace B. Soltau," January 17, 1926.

36) 송의여학교 유치원 사범과는 1924년 개설되었고, 1927년 총독부로부터 '보육과'로 인가받은 서북지역 유일의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이었다.

모두 선교사의 교육을 받았다.<sup>37)</sup> 그러나 이 책에는 구체적인 교원 명단을 밝히지 않아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려웠는데, 루츠와 솔토의 편지 및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사범과 교원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활약은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본국 선교부로 보내진 송의여학교 1921-22년 보고서는 이 시기 음악교사와 유치원 교원의 필요가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교원의 자격으로 ‘미국인 여성’(American Lady)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sup>38)</sup> 이것이 한국인들의 요구인지, 교원자격이 있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영입이 어려웠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필요가 루츠<sup>39)</sup>와 솔토 등 1921년에 내한하여 평양으로 부임한 음악 전공 선교사들을 곧바로 영입하여 수업에 투입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평양외국인학교는 국내를 비롯해 만주 등 중국에서 사역하는 영미권 선교사 자녀들과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들이 기숙하며 공부하였던 규모 있는 외국인학교였다. 이 학교는 내한 선교사들이 재능 기부를 하거나 전문 교사가 단기로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를 충당했는데, 솔토와 루츠, 부츠세 선교사 모두 평양 외국인학교의 음악교원으로 일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43년에 평양외국인학교에서 발행한 *The Master Kulsi*는 학교의 간단한 역사와 교원 및 학생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루츠는 1920년부터 1940년까지 성악교습과 합창 지도를 담당했으며, 솔토는 1921년부터 1929년까지 피아노와 합창 지도를, 부츠는 1928년부터 29년까지 바이올린 교습과 오케스트라 지도를 맡았다.<sup>40)</sup>

37) 송의90년사 편찬위원회, 『崇義九十年史: 1903-1993』 (송의학원, 1993), 171.

38) “Annual Report of Pyenyang Academy for Young Women 1920-1921”

39) 루츠도 개인 이력서를 통해 평양의 여자학교[송의]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명시하였다. “Missionary Profile: Mrs. Dexter Nathaniel Lutz”

40) *The Master Kulsi*, “Record of Teachers,” 1943.

1934-35년도 학교 소개서를 통해 평양외국인학교의 교습 내용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당시 기독교 학교 음악교과 커리큘럼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이다. 이에 따르면, 음악 분과 수업은 크게 a) 음악과 합창 등 정규 수업, b) 성악 및 악기 개별 수업, c) 밴드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b) 와 c) 는 별도의 수업료가 더 부과되었다. 음악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교내 리사이틀에 가능한 자주 참여해야 했는데, 이는 무대에서의 침착성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성악 및 악기 개별 레슨은 기본적으로 주당 1회 30분으로, 매일 45분에서 한 시간가량의 연습이 요구되었으며, 피아노 고급반의 경우엔 주 당 1회 60분 수업에 매일 두 시간씩의 연습이 학생들의 의무 사항이었다. 악기 개별 수업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담당 교사의 판단에 따라 밴드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sup>41)</sup>

이 밖에도 루츠와 솔토는 평양 소재 고등성경학교, 여성고등성경학교 등 신학교에서 글리클럽이나 합창단 등을 지도하고 이끌며 일상적인 음악 풍토 변화에 중요한 밑거름을 만들어 나갔다.<sup>42)</sup> 부츠는 신학교 등의 강의 이외에도 장로교 소속이 아닌 이화전문학교의 바이올린 강사로 활약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교육활동의 범위가 더 넓었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이렇게 루츠와 솔토, 부츠 등을 통해 음악을 배우고 익힌 학생들의 다수는 교회의 찬양 인도자나 반주자로 활약하였고, 일부 재능 있는 이들은 음악가로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선교사들의 음악활동이 1차원적인 영향력을 넘어 상당히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1) *Penyang Foreign School 1934-35*, 18-19.

42) “Missionary Profile: Mrs. Dexter Nathaniel Lutz,”; “Lutz, Lenore Harpster (Mrs. D. N. Lutz),” December 09, 1955; *The Korea Herald*, 1967.01.11. 등의 자료에 이러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43) *Ewha College Catalogue* (Y. M. C. A. Press, 1930); Florence E. S. Boots, “Personal Record,” 1936-37. 등에 따르면 부츠는 이화전문학교 음악과에서 시간 강사로 바이올린 가르쳤다.

## b. 유치원 교육 및 유치원 교원 양성

평양 지역의 유치원 교육을 이끈 인물은 단연 루츠 선교사이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그녀는 음악과 함께 유치원 보육을 전공한 전문가였던 만큼 어린이 교육과 교사 양성에 힘을 썼다. 1925년 3월자 *KMF*는 “1920년대에 유치원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커지면서 평양에만 8개의 유치원을 운영”<sup>44)</sup>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평양 내 모든 유치원은 교회의 후원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선교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일부 받고 있다”<sup>45)</sup>는 사실은 적어도 평양에서는 선교지부의 긴밀한 지원 아래 유치원 교육이 전개되었음을 밝혀준다. 유치원 상황에 대한 그녀의 보고는 1924년부터 승의여학교에 개설되었던 유치원 사범과를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정의유치원 등 평양선교부와 관련된 유치원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업가였던 한국인 최정서의 지원으로 세워진 정의유치원과 유치원 보육 교사 양성과정은 루츠 등 선교사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측은 루츠의 이력서에서 1924년 평양에 유치원과 함께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건물을 오픈하였다고 기술한데서 기인한다.<sup>46)</sup>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1923년 5월 27일자 기사는 정의유치원 건물이 곧 완공될 예정이며 6월 1일에 개원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47)</sup> 또한 이듬해인 1924년 3월 8일 기사에 교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유치원 사범과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실으면서 ‘루쓰’와 ‘뛰킨쓰’ 등 외국인 교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sup>48)</sup> 그녀의 이력서에 언급한

44) Ernice L. H. Lutz, “Unto The Least Of These (Kindergarten Work),” *Korea Mission Field* 21/3 (1925), 69-70.

45) Ernice L. H. Lutz, “Unto The Least Of These (Kindergarten Work),” *Korea Mission Field* 21/3 (1925), 69-70.

46) “Lutz, Lenore Harpster (Mrs. D. N. Lutz),” December 09, 1955.

47) “鼎義幼稚園,” 『동아일보』, 1923.05.27.

내용이 기사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루츠는 유치원 건물이 1924년에 오픈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시일의 차이가 단순한 오류인지 선교부가 정의유치원 사범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 있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sup>49)</sup>

루츠의 보고서와 『동아일보』 기사는 시각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업가이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독지가 최정서의 기부로 정의유치원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데 반해, 루츠의 보고서는 유치원이 평양 선교부 지원 하에 있는 사역의 일부였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화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설립이후의 정의유치원 사범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설립 초기부터 루츠 등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관여하였다는 점, 1925년 이후 승의여학교 유치원 사범과에 대한 기사가 주로 검색된다는 점, 30년대 승의 유치원 사범과가 서북지역 유일의 보육과로 알려졌다다는 점<sup>50)</sup> 등을 미루어 보아 정의유치원 사범과가 승의여학교 사범과로 인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48) “幼稚園師範新設,” 『동아일보』, 1924.03.08. 기사에 명시된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49) “鼎義幼稚園,” 『동아일보』, 1923.05.27.

50) “崇義의 廢校와 함께 保育科도 殞命,” 『동아일보』, 1938.01.28.

(그림 2) 평양 정의유치원 및 사범과 건물. 『동아일보』 1923년 9월 17일자.



루츠는 자신의 선교편지를 통해 꾸준히 유치원 사역에 관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유치원 교원의 취업문제와 재원 마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20년대 이래로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 만큼 교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증인과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루츠 역시 가장 큰 필요가 바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된 교원이라면서, 여학교 사범과의 졸업생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훈련된 유치원 교원이 가장 절실한데, 유치원 원아들을 지도할 뿐 아니라 여학교의 유치원 보육과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일본의 사범과 과정을 마치고 이 일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외국인 교원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유치원 교원 양성 과정의 유일한 여성교원이자 여러 많은 책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sup>51)</sup>

당시 평양에서 운영된 여학교의 유치원 보육과는 승의여학교가 유일하였다는 점에서 승의 보육과와 관련된 글임을 알 수 있다.<sup>52)</sup> 이 글에서 루츠는

51) Lutz, "Dear Friends," February 09, 1928.

52) 총독부의 인가를 얻은 서북지역의 유일한 보육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보육과

보육과 졸업생들의 일본 학교 진학과정에도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정식 교원으로 키우고 있음을 밝힌다. 이것은 당시 총독부의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총독부는 공인된 교원자격증을 가진 전문 교사를 두도록 법령에 명시하였다. 당시 송의여학교의 보육과는 1927년 총독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긴 했으나 대학과정이 아니었던 만큼 송의여학교 졸업생들은 보육과의 교원이 되기 위해서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총독부 승인의 교원을 확보하는 일은 오랜 시간 재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했다.

또한 루츠는 송의여학교 보육과 학생들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원 양성과정을 이끌어 갈 외국인 전문가의 필요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편지를 보낼 당시 보육과 운영이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루츠 개인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처리하기에는 업무의 과부화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부분의 유치원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교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임무는 루츠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sup>53)</sup> 또한 사범과 졸업생들의 진로문제 또한 루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규모 유치원들의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은 정황을 볼 때 졸업생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유치원 취직이 녹록치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필요 또한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54)</sup> 평양의 교육열이 높았던 만큼 1920-30년대 유치원의 수요가 상당했으나 제반 여건이 부실한 채로 유치원이 난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55)</sup>

---

및 보육학교 신입생 모집 기사에도 경성의 이화, 중앙, 경성보육학교 이외의 송의여학교 보육(모)과의 모집 요강을 찾아 볼 수 있다. “中等以上男女學校 入學案内,” 『동아일보』, 1930.02.13.

53) 루츠의 이 보고편지에 의하면, 평양 선교부는 선교기지 내 기독교계 유치원의 교사 월급을 일부 충당하고 있었다. 매달 10-20불 정도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었고, 이외에도 필요 물품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유치원 개원을 위한 제반 사항에 관여하고 있었다.

54) Lutz, “Dear Friends,” February 09, 1928.

결국 교회나 선교부의 지원 없이 유치원의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은 30년대 까지도 지속되었고, 루츠는 그 중심에서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1920-30년대 유치원 교육은 음악과 유희에 방점이 찍혀 있어 일반인들 사이에 유치원 교육이 음악교육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이 시기 유치원이 급속히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음악 중심의 각종 연합 발표회가 성행했던 분위기는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동중심주의와 놀이중심으로 개혁되던 미국과 일본 내 유아교육계의 상황이 한국의 음악과 유희 중심의 교육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sup>56)</sup> 유치원 교육을 선도했던 미국선교사와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 전문가들의 영향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유치원 교육은 한반도 음악문화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따라서 그 기여도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 c. 미국의 최신 교재 소개

1910년대까지 선교사들이 발행한 교재나 악보책은 찬송가 이외에 『창가집』이 유일하다. 선교사 애니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와 베커(Louise Ann Smith Becker)가 평양 숭실에서 일을 할 당시에 그로브(Paul L. Grove) 목사와 함께 작곡 및 편곡에 관여하여 발행한 책이다. 한국인의 연행적 특징에 따라 부르기 쉬운 곡들로 구성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악 토착화와 관련된 선교사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이 나름의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악보집을 만들었다면, 1920-30년대 선교사들은 오히려

55) 실제로 해방 이전까지 평양남북도에서 운영된 유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서울 경기권의 유치원에 85개였던 것에 비해 평안남북도에서 운영된 유치원은 142개에 달했다.

56) 이상금, 『한국 근대 유치원 교육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281-282.

기존 미국의 교재를 그대로 소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에서 보듯이, 이 시기 발행된 대부분의 책들은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책도 많지 않을뿐더러 발행 등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미국에서 발행된 책의 번역본이거나 외국곡 편집본이다. 창작곡을 수록한 경우는 선교사 관련 한국인 작곡자들의 작품이 수록된 경우에 해당한다.

[표 3] 1920-30년대 선교사가 관여하여 발행된 주요 음악 서적

제목	편집자 (작곡자)	발행년	발행자	성격
가곡집	한석원 編	1925	Holdcroft	번역+창작
찬양대용 성가선집	박윤근 編	1929	Mowry	번역
유희창가집	C. G. Brownlee 編	1930		번역
피아노 선율법	윤성덕 譯	1930	Mary E. Young	번역
신편성가 합창곡집	박태현 編	1936	Anderson	번역
저녁시간 고요히	정상록 編	1937	Coen	번역
교회음악 Vol.6	Anderson 編	1937	Anderson	번역
세계동요곡집 제1집	정상록 編	1937	Coen	번역

정확한 출판이 확인되지 않아 위의 [표 3]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필자가 입수한 솔토의 사역 보고서는 피아노 교수법에 관련한 책의 번역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녀의 1928년 사역보고에 의하면, 안식년 이후 평양 외국인학교 학생들에게 이미 *Melody Way*<sup>57)</sup>를 사용해 교육중이라고 쓰고 있다. 이 책은 미국 시카고 Miessner Institute of Music에서 발행된 교육용 교재로 당시 음악 지도법으로 유명세를 날렸다. 그녀는 이 교재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57) W. Otto Miessner, *The Melody Way to Play the Piano* (Chicago: Miessner Institute, 1924)

피아노와 오르간 지도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그룹 지도 교사들, 고등 성경 학교 학생들, 승의여학교 학생들과 외국인학교 어린이들의 실력 향상의 추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피아노 입문자를 위한 새로운 교수법 “멜로디 웨이”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소개하였는데, 유치원 교사들을 위해 이 책의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수법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카드로 만든 키보드는 연습에 매우 유용합니다. 피아노나 오르간을 사용할 수 없는 기숙사나 한국인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sup>58)</sup>

이 편지를 쓰기 전 해인 1927년, 안식년(furlough)을 미국 시카고에서 보낸 솔토는 시카고 음악대학에서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였다. 대학에서 화성, 청음, 성악, 피아노 등의 수업을 들었다는 그녀는,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교수법 수업에 참관하였던 기회를 강조하면서 친절하고 우수한 선생님들이 유용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었다고 적고 있다.<sup>59)</sup> 7년 동안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에서 피아노를 가르친 그의 전문성은 한국의 아이들을 위한 보다 질 좋은 피아노 교육에 관심이 컸던 것이다. 안식년 이후에 곧바로 *Melody Way*를 평양외국인학교에 소개하였고, 승의여학교 유치원 보육과에서 교원을 양성했던 만큼 교사 교육을 위한 교재로 이 책을 활용하고자 번역작업에 착수했던 것이다.

오토 마이즈너(W. Otto Miessner, 1880-1967)가 저술한 이 책은 시카고 소재의 Miessner Institute에서 1924년에 출간되었는데, 출간 당시에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며 유행하였다. 그룹지도방식의 피아노지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기존의 개인교습 방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좀 더 저렴하고 흥미 있는 피아노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 당시 미국의 교육계에 영향을 미쳤던 “Music for every Child”(모든 어린

58) Grace B. Soltau, “Dear friends,” May 19, 1928.

59) Grace B. Soltau, “Dear friends,” March 10, 1927.

이에게 음악을)<sup>60</sup>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회구성원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악기의 수요가 많지 않고 일반 아이들이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에서 매우 적합한 교수 방법이자 교재였다.

이 책의 번역본은 평양이 아닌 경성에서 발간된 것이 확인되는데, 1930년에 이화여전에서 번역하여 사용한 『피아노 旋律法』가 그것이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피아노과 교수 윤성덕이 번역하고 음악과장으로 있던 선교사 메리 영(Mary E. Young)이 발행한 이 책은 제목과 가사가 한국어와 일어로 번역되었으나, 첨부된 기초이론이나 해설은 영어 원문 그대로 실려 있다. 앞서 인용한 솔토의 1927년 10월 보고서에서 확인했듯이, 이미 평양 외국인 학교에 소개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번역 또한 착수된 것으로 보아 윤성덕이 번역한 책보다 적어도 3년 이상 먼저 솔토에 의해 소개·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솔토에 의해 출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윤성덕이 책의 어디에도 솔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화에서 평양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이 책의 존재를 인지하였는지, 책의 출판과 번역에 솔토가 기여하였는지 등의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1928년부터 1929년까지 평양외국인학교에서 음악교원으로 일했던 부츠가 이후 이화 음악교원으로 일했던 만큼, 윤성덕이 솔토가 번역 작업중이었던 *Melody Way*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sup>61</sup> 부츠가 일했던 시기에 솔토가 이 책을 소개하고 사용했다고 언급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아노 旋律法』을 번역하고 서문을 썼던 윤성덕이 책을 입수한 경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미국 유학중에 이 책을 입수한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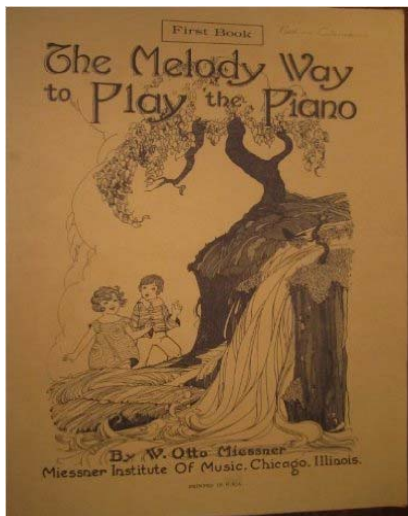
60) W. Otto Miessner, *The Melody Way Course: Class Piano Instruction* (Chicago: Miessner Institute, 1924)의 속표지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 책은 1924년 발간된 교재의 교사용 지침서에 해당한다.

61) 1934년 평양외국인학교에서 발행된 *The Master Kulsu*, "Record of Teachers"에는 부임했던 교원들의 명단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부츠는 음악교원으로 일하며 2년 간 바이올린 교습과 오케스트라 지도를 맡았다.

이미 번역작업에 착수했던 책을 이화에서 출판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근거 자료를 필요로 한다.

솔토 개인의 편지 내용을 기반으로 윤성덕의 번역 이전에 *Melody Way*가 우리나라에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교재 사용의 시기가 당겨졌다는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음악 전문 선교사들이 다양한 미국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선교 초기 찬송가를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던 교육 방법은 2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일본이나 미국 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재 등이 접목되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전문 선교사들이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경험한 교수방법과 교재를 그대로 응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Missner Institute, 1924.



(그림 4) 이화여전, 1930.



한편, 솔토 뿐 아니라 부츠도 악보의 번역과 보급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의 개인 기록에 의하면, 경성 성가 연합(Seoul Choir Union)의 디렉터로 활약한 부츠는 김형준과 함께 바흐(Bach), 세자르 프랑크(Cesare

Franck), 사무엘 웨슬리(Samuel Wesley) 등 교회 음악을 작곡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구, 번역, 출판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sup>62)</sup> 30년대 후반 교회 음악에 깊이 경도되어 있던 부츠는 교회 음악 컨퍼런스, 다양한 성가대 활동, 번역, 그리고 합창 음악 출판 준비하는데 할애하면서 교회의 음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진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교회음악 악보 출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부츠의 이러한 활약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자료들이 밑바탕이 되어 가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자로부터 많은 유치원들에 이르기까지 오르간과 관련한 교수법과 자료를 구하기 위해 부츠의 도서관(library)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그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63)</sup> 그러나 아쉽게도 그가 번역하고 출판한 책들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해 어떤 곡들이 어떠한 형태로 출판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 2) 다양한 음악활동으로의 확장

### a. 연주활동

세 명의 여성선교사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청각적인 영향력을 드러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1923년 6월 공회당에서 열린 루츠와 솔토 선교사의 단독공연이다.<sup>64)</sup> 내한한지 겨우 만 2년을 넘긴 선교사들임에도 꽤나 이름이 알려진 음악가들이었다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솔토는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티켓 파워를 가졌다는 것에 흥미 있어 하면서, 1000명의

62) Florence E. S. Boots, "Personal Record," 1936-37.

63) Florence E. S. Boots, "Personal Record," June-December 1937.

64) 『경향신문』, 1973.02.27. 기획 연재 기사 “우리文化 <26>”의 “音樂 (11) 연주活動”을 통해 당시 초기 연주회의 장면 장면을 회고 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루츠와 솔토의 합동연주회 뿐 아니라, 연전문과학장 빌링스의 부인인 빌링스 부인, 스미드 선교사, 치과의사였던 미국인 한대위 선교사 등의 음악활동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청중들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6월 9일에 서울에서 콘서트를 갖는 루츠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콘서트 명칭 때문에 꽤나 웃었는데, 티켓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 루츠-솔토 콘서트라 이름 붙였기 때문입니다. 공회당에는 1000여 명의 청중들이 운집했고, 우리는 어디서고 예술적이라 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sup>65)</sup>

짧은 한 문단의 글에 불과하지만 솔토의 진술은 두 선교사들의 음악적 유명세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추측하게 한다. 좀 더 자세히 이들의 공연활동의 증거들을 재구성한다면, 당시의 음악관련 여성선교사들이 단순히 학교와 교회의 교육자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그들의 활동과 영향의 범위가 훨씬 컸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회에 출연자로 이름을 올린 루츠는 1921년 내한한 직후부터 성악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 주요 신문 기사에서 확인한 루츠 출연 음악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루츠 출연 주요 음악회 목록

일시	장소	음악회 명칭	연주 부문	내용
1921.05.08	종로중앙회관	서양인구락부 연주회	독창	서울음악구락부 주최 루츠 부인의 연주가 크게 주목 벨링스 부인, 꼴문 부인 등 출연**
1921.05.30	숭실대학교상층	평양특별음악회	독창	평양남학생전도회 주최
1921.06.10	숭실대학교상층	송의여중학교 음악회	독창	송의여중학교 주최
1921.07.09	평양 남문의교회	남문의교회음악회	독창	남문의교회 청년전도대 주최
1921.08.29	평북강계장로교회	여자면러회음악회	독창	평북강계장로교회 여자청년면러회 주최

65) Soltau, "Dear friends," June 1923.

일시	장소	음악회 명칭	연주 부문	내용
1921.09.22	평양신학교상층	주일학교음악회	독창	남문의주일학교 주최
1922.02.06	승실중학교상층	평양음악대회	독창	평양장대현교회 주최 선교사 솔도 부인의 피아노 연주 차재일, 박경호, 박윤근 등 승실 출신들이 함께 출연.
1923.06.09	경성공회당	루츠-솔도 합동연주회	독창	음악선교사들의 단독 연주회
1923.07.03	평양남산현교회	엠틀청년음악회 <sup>66)</sup>	독창	평양남산정 남여엠틀청년회 주최
1923.10.09	평양승실학교 강당	계정식송별 음악회	독창	평양유지청년들의 발기
1925.02.16	승실중학교 대강당	평양여청춘계 음악회	독창	평양여자청년회 주최 박경호, 차재일, 박윤근 등이 출연.
1927.07.01	엠틀청년회관	음악연주	독창	기독교청년면려회조선연합회와 엠틀청년회 개최, 차재일 출연.
1928.04.28	평양승실전문강당	평양승실 춘기음악회	독창	평양승실전문학교 음악부 주최 박경호 고별연주회 머칠 후 경성에서 루츠 독창회 예정.
1931.04.04	백선행기념관	민요의 저녁	독창	평양연화동교회 찬양대 주최 세계각국의 대표 민요 연주
1935.12.31	백선행기념관	망년음악회	독창	엠틀청년회 주최
1936.05.16	백선행기념관	평양음악대회	독창	서문밖교회 기독교청년회 음악부 주최
1947.10.29	국제극장	지영숙 독창회	합창 지휘	미국인교회 합창단 지휘로 찬조출연
1947.11.08	국극장	합창음악대회	합창 지휘	미국인합창단 지휘로 찬조출연

\*\*외국어 표기는 신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66) 엠틀청년회(Epworth League)는 1897년에 열린 제13회 미감리교 한국선교연례회의 결정으로 결성된 청년단체로, 선교부 산하 개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전국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한국청년운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도대회나 강연회를 비롯해 주일학교, 유치원, 야학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 계몽 운동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921년 5월에 있었던 외국인 서울음악구락부 주최 음악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연주자는 다름 아닌 루츠였다. 빌링스(Mrs, Billings), 골만(Mrs, A. Gorman), 반 버스커크(James Van Buskirk, 1881-1969) 등 음악교원으로 활약하거나 재능을 가진 선교사들이 대거 출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적인 성격을 가진 연주회였기에 상당한 수준을 보인 루츠의 연주는 단연 큰 환호와 인기몰이를 했다.<sup>67)</sup> 이러한 주목은 이후 다양한 연주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연주 활동에 매진했던 루츠는 외국인 서울음악구락부 주최 음악회 이후엔 대부분 평양에서 열린 연주회에 출연했다. 평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였다는 점, 평양에서 음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참여한 공연을 통해서도 확인된다.<sup>68)</sup> 학교에서 성악 레슨을 주로 담당하였고 합창대나 신학교와 교회의 성가대를 지도하였던 루츠에게 무대는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전엔 대부분의 무대에서 독창을 선보이며 발성과 무대 매너, 다양한 레퍼토리로 성악을 공부하는 평양의 학생들에게 좋은 예시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교육가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빼어난 성악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루츠의 음악적 영향력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는 일이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거의 모든 연주회가 교회나 숭실, 숭의 등 기독교 학교 주최 음악회였다는 점에서 선교부 또는 교회와 관련된 공연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선교사로서 종교적인 영역 내부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가진 정체성의 무게 중심이 음악보다 선교에 가까웠음을 의미한다.

1940년에 강제 추방되었다가 해방 이후 다시 내한 한 루츠는 이화여대 음대에서 교수 활동을 하는 등 여전히 음악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연주활동에 있어서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창단

67) “西洋人俱樂部의 演奏會,” 『동아일보』 1921.05.08.

68) 1938년 *KMF*에서 루츠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및 지휘자로서 활약하였다. 사역 초기부터 평양외국인학교의 글리클럽을 이끌고, 여성고등성경학교의 성가대 및 여러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하기도 하는 등 합창지휘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던 그였다. 합창과 관련된 폭넓은 활동은 평양의 장로교 교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성가협회(Korean Choral Society)의 관여로 이어지기도 했다.<sup>69)</sup> 이러한 경험적 기반은 해방이후 경성과 대구 등지에서의 사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합창단을 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주활동의 변화는 성악가로서의 입지가 좁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국내의 음악적 역량이 1920-30년대에 비해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구 지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사역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부츠는 루츠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활동을 펼쳐갔다. 그가 출연한 음악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는 『동아일보』, 『매일신보』 기사에서 정리한 부츠 관련 주요 음악회 목록이다.

[표 5] 부츠 출연 주요 음악회 목록

일시	장소	음악회 명칭	연주 부문	내용
1921.08.02	원산부광석동 예배당	원산 보광교회 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원산보광학교 주최. 하디 부인(Mrs. Hardie), 마틴 부인, 아펜젤러 양 등 선교사 대거 출연.
1923.10.19	경성공회당	계정식 연주회	바이올린 합주	스미스 목사 등 출연.
1923.12.03	중앙기독교 청년회 대강당	알국 고아 구제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아르메니아 고아 구제회 주최. 합캅 부인, 아펜젤러양, 록양 등이 출연.
1928.03.03	중앙기독교 청년회강당	관현악대 연주회	바이올린 협연	중앙악우회 음악회 차재일, 이화 글리클럽 출연

69) Lutz, "Dear Friends," November 28, 1930; Personal Record in Lutz collection.

일시	장소	음악회 명칭	연주 부문	내용
1928.03.02	평양공회당	승전음악부 졸업생축하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평양승전 음악부 주최 송의 정의 합창단 출연.
1928.09.29	중앙청년 기독교회관	안기영 독창회	바이올린 독주	〈찰더쓰 몬 티〉 〈안단티노 말티니 크라이슬러, 세레나테 쭈리고〉 반주 고봉경.
1928.11.06	장곡천정공회당	중앙유치원 후원회 음악의 밤	감독 및 지휘	박경희, 안기영, 김영환 등 출연.
1929.05.10	장곡천정공회당	정동교회 음악부 춘기 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정동교회 음악부 주최 김영의, 안기영, 데머론, 정애식, 립성의 등 이화 교원들이 대거 출연.
1929.09.07	제일심상소학교 강당	현재명 환영 독창회	바이올린 독주	고봉경 반주.
1929.09.27	장곡천정공회당	현재명 환영 독창회	바이올린 독주	연희전문학교 음악부 주최. 고봉경 반주.
1932.06.04	중앙회관 강당	안병소 독주회	피아노 반주	송도고보 동창회 주최
1932.09.24	공회당	중앙불교전문학교 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중앙불전 음악부 주최. 스트테니 등 출연.
1932.02.18	공회당	안병소 독주회	피아노 반주	조선음악가협회 주최 이화전문 음악과 교수로 소개된 쉐무린(데머론) 양도 출연.
1932.04.16	종로청년회관	권태호 독창회	바이올린 독주	종로청년회 주최 김정순, 박태준, 안병소 출연.
1932.12.02	이화여전 대강당	이전음악과 직원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이화글리클럽과 함께 조연으로 출연한다고 예고하고 있음.
1933.05.05	장곡천정공회당	아동보건선전 춘계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경성 아동 보건회 주최 이화 출신 음악가들 출연.
1933.10.14	배제고등보통 학교 대강당	위안회 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박경호, 홍영후 등 출연.
1934.06.22	정신여학교 정원	정신여학교 교내음악회	바이올린 독주	정신학생기독교청년회 주최. 쿤스 자매, 홍성유 등 출연.

일시	장소	음악회 명칭	연주 부문	내용
1937.02.03	부민관대강당	전형철 신춘독창회	관현악단 바이올린 주자	경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홍난파)

“일반인도 잘 아는”<sup>70)</sup> 명성만큼이나 부르는 주로 경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행사 외에도 중앙유치원이나 아동보건회에서 주최하는 일반 기관 음악회라든지 음악가 개인 단독 음악회에 다수 출연하였고, 중앙불교전문학교 음악회 등 타종교 음악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행보를 단순히 선교사의 활동이라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음악가로서의 부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츠는 서양음악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다. 1938년 4월호 *KMF*를 통해 “음악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음악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멘델스존이 17살에 쓴 《한 여름 밤의 꿈》이라든지, 꼬리를 쫓는 강아지를 묘사하는 쇼팽의 《미뉴엣 왈츠》를 알았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71)</sup> 그가 말한 음악은 각 민족의 고유한 음악이라기보다 서양음악에 기초한 클래식 음악이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다양한 훈련이 감성을 가꾸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연유한 근원은 교회음악이며 따라서 우리가 “초기 교회에 빛을 지고 있는 것”<sup>72)</sup>이라는 그의 주장은 서구 음악의 연원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서구 음악(클래식)의 우월성에 대한 뿌리 깊은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종교와 교파를 넘나드는 연주활동의 이면에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주는 대부분 바이올린 독주를 맡았는데, 당시 국내 바이올리니스트가

70) “勝洞基靑은 中止, 佛專만 예정대로,” 『동아일보』, 1932.09.16.

71) Florence Boots, “A Goodly Inheritance,” *Korea Mission Field* 34/4 (1938), 74.

72) Florence Boots, “Praise and Devotion,” *Korea Mission Field* 34/4 (1938), 67.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높지 못한 상황은 부츠를 더욱 독보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대접하였다. 안병소 등 우리나라의 우수 바이올린 주자들의 레슨을 맡았을 뿐 아니라 주요 음악가들과 교류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우리 음악계의 신뢰가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그의 실력과 음악계의 인정은 중앙악우회라는 최초의 전문 관현악단을 조직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바이올린 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 실력도 출중했던 부츠는 바이올린 주자들의 연주에 반주로 참여하였다. 바이올린 연주에 탁월했던 만큼 악기의 특성을 이해한 반주로 각광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b. 방송 및 음반관련 활동

교류가 잦았던 솔토와 부츠, 루츠는 음반 녹음 작업도 역시 함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음반의 보급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도 교회 음악 음반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더했는데, 복음전도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악 전문가 루츠와 반주 경험이 풍부한 부츠가 미국계 회사인 콜롬비아 음반사에서 찬송가를 녹음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1931년에 걸쳐 발매된 Columbia 음반은 “주의 자비하신”, “주의 뜻대로”, “천성을 향함” 등 주로 복음적인 내용의 곡들이 담겼다.[표 6] 이 가운데 <Columbia 430203>의 “Korean Harvest Song”(秋收歌)이 돋보인다. 추정컨대, 이것은 루츠의 한국 음악에 대한 식견과 이해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게일 선교사와 함께 궁중관현악단의 녹음 과정에 참관했던 루츠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회 등에서 연주되는 예식음악은 물론 민속음악과 같은 대중적인 한국음악의 특징을 *KMF* 1938년 4월호에 자세히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 루츠는 한국인들에게 “음악이 없다”고 느꼈던 몇몇 선교사들의 발언과 달리 서구 음악과의 차이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음악적 차이와 함께 가창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 음악가들이 최근 자신들의 고유한 음악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서구 음악과의 결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한다.<sup>73)</sup> 개인보고서에 다수의 전통음악 음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의 한국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sup>74)</sup>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음반에 한국음악이 수록된 이유를 가늠하게 한다.

〔표 6〕 루츠, 부츠, 솔토 관련 음반

음반	출시연도	수록곡	연주자
Columbia 40299	1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 자비하신</li> <li>• 주의 뜻대로</li> </ul>	루츠 노래 부츠 반주
Columbia 40203	1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rean Harvest Song</li> <li>• 천성을 향함</li> </ul>	루츠 노래 부츠 반주
일축조선소리판K8임27	1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인도하심</li> <li>• 이전보다 더 사랑함</li> </ul>	루츠
일축조선소리판K8임28	1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르시네</li> <li>• 오렐수록 더욱 기쁨</li> </ul>	루츠, 솔토, 윌리엄 베어드 쇼

1932년에 발매된 일축조선소리판에서도 루츠와 솔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등의 1932년 7월과 8월자 신문에 광고가 등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일축조선소리판 K8임27>은 루츠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했으나 반주는 누가 담당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일축조선소리판 K8임28>의 경우엔 루츠 뿐 아니라 솔토와 ‘엠 베어드 윌리엄 쇼’가 함께 연주했다. ‘엠 베어드 윌리엄 쇼’는 애니 베어드의 아들인

73) Lutz, “Music in Korea-Old and New,” *Korea Mission Field* 34/4 (1938), 76.

74) Lutz, “personal report,” 1942.

윌리엄 베어드 주니어(William M. Baird Jr., 1897~ ?)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1923년부터 내한 선교사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음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발매 시점인 1932년엔 솔토가 선교사를 사임하고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라는 점에서 녹음은 적어도 1929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음반의 일련번호를 볼 때 나팔통식 녹음에서 전기녹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임시로 녹음된 비정규 음반인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전기녹음기술이 도입된 1928년 즈음 녹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축조선소리판의 수록곡은 모두 찬송가로 전도용 음반으로 볼 수 있다. 전도용 음반도 소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음반을 녹음한 선교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미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루츠와 솔토, 부츠가 가장 출중한 음악적 전문가로서 활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5)</sup> 그러나 레코드사의 입장에서 상업성과 거리가 먼 선교사들의 음반이 그리 달가울 리 만무했다. 1920년대 말에 이미 음반사의 음악부장들은 대중적인 취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기에 그만큼 다양한 음반이 출시되기는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설은 선교사 관련 음반이 소수에 불과한데다 정식반이 아닌 임시반으로 출시되는 등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자신들의 음반 뿐 아니라 재능 있는 한국 학생들을 음반 작업에 추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루츠의 보고서에 의하면, 테너였던 차재일(1924-?)이 콜롬비아사에서 음반 작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는 뉘앙스의 글을 적었다.

최고의 솔리스트이자 리더인 차군(차재일)이 이번 가을 콜롬비아 사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그의 음반이 선교사들이 만든 음반과 함께 전국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sup>76)</sup>

75) 이화여전의 학장을 역임했던 앨리스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 1885-1950)가 이화여전 합창단 음반이나 안기영의 음반에서 반주로 참여한 경우 이외에 선교사가 음반을 취입한 경우가 드물다.

76) Lutz, "Dear friends," November 28, 1930.

성악을 공부했던 평양 숭실 출신의 차재일이 음반 취입 제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77)</sup> 루츠는 차재일이 성악가로서 매우 뛰어난 실력을 지닌 리더로 매우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 근거리에서 그와 함께 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1966년에 발행한 『음악연감』의 작고(作故) 음악가란에 차재일은 “평양 출생, 숭대대학교졸, 숭실학교음악교사, 독창회개최, 루츠부인에게 사사”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루츠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재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재일은 콜럼비아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이듬해 음반을 출시하였는데, “금종”, “모란봉가”, “매기의 추억”, “망향가”(望鄉歌), “영광의 찬송”,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등이 수록되었다.<sup>78)</sup>

한편, 193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교회음악 발전에 열을 올렸던 부츠는 방송에도 관여하였다. 필자가 입수한 부츠의 개인 기록은 그가 JODK(경성방송국)의 음악 방송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밝힌다.<sup>79)</sup> 물론 교회 음악에 관한 일이었지만 큰 영향력이 있는 방송의 선곡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음악 전문가로서 공인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방송 기획 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였던 정황도 포착된다. 『동아일보』 1932년 2월 29일자 라디오 방송편성표에는 6시부터곽정순의 바이올린과 부츠의 반주가 방송될 것임을 알렸다. 같은 신문 1933년 3월 12일자에도 역시 곽정순과 부츠의 베토벤作 “小夜樂” 연주가 예고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부츠가 1930년대 들어서 방송관련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교회음악발전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주가 다양한 예술 음악에 천착해 있었다는 점은 서양음악이 인간

77) 『三千里』(1932) 4권 2호에 따르면 평양숭실전문학교 출신인 차재일은 1934년경엔 평양 숭실의 교수로 소개되기도 하는 등 음악교원으로 활약하였다.

78) Columbia 40140. 40179. 40237. (1931). 『동아일보』, 1931.01.17. 에서 콜럼비아 레코드 신보 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79) Boots, “personal record,” 1937.

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그의 믿음과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c. 관현악단 창단 및 유학의 길잡이

선교사 부츠와 관련해 중앙악우회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문 관현악단의 시초로 일컬어지는 중앙악우회 조직에 있어서 부츠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1926년 조직된 중앙악우회는 박경호 등 평양 숭실 출신 주축으로 이루어진 관현악단이다. 부츠가 1935-36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기 이전까지 주로 지휘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1973년 3월 20일자 『경향신문』은 “피츠버그 음악학교 출신 부스 부인이 중앙악우회 운영과 지휘를 맡아 한국관현악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기록한다. 또한 『경향신문』 1986년 4월 3일자에서도 이상만은 “부스 부인이 피아프오르간, 바이올린, 피아노 등에 능하였고, 지휘 솜씨도 뛰어나 이 오케스트라를 열정과 비범한 솜씨로 이끌었다”고 회고하였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등을 연주한 중앙악우회의 첫 번째 공연은 사람들을 압도하였는데, 여성 지휘자 부츠의 지휘하는 모습이 단연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고 전한다.<sup>80)</sup> 경향신문 1974년 4월 17일자에 의하면, 국악계 원로인 이혜구도 부츠를 중앙악우회의 지휘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경성제대법문학부 영문과에서 공부 중이었던 1930년 취미로 비올라를 연주하였던 이혜구는 중앙악우회 연주자로 초빙되는 경험을 한다. 이 때 중앙악우회의 ‘지휘자’였던 부츠 부인을 알게 되어 그의 일을 도우며 한국음악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주 1 회 중앙청년회관에 모여 연습을 하였던 중앙악우회는 재정적인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았다. 전문 음악인들이 연주를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따라서 선교사의 지원은 악단 운영에

80) 이상만, 『경향신문』, 1986.04.03.

있어서도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부분은 당시를 기억하는 음악계 원로들이 부츠 부인의 주도로 중앙악우회가 시작되었고 지휘자로서도 손색없었다고 기억하는데 반해, 1920-30년대 신문에서 부츠가 지휘자로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성 리더십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기사 작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부츠의 활약과 영향력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츠가 실력 있는 음악인으로써 단원의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부츠 개인의 활달한 성격과 서구 음악인으로써의 자부심, 국내에서 보기드문 실력 등이 한국의 남성중심의 문화에 개의치 않는 적극적인 음악활동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음악공부를 위해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의 안내자가 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부츠와 안병소의 스토리이다. 음악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데 중요한 스승으로 역할 했을 뿐 아니라 전문인으로써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걸음에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안병소가 처음 부츠를 알게 된 것은 흥미롭게도 군악대원으로 활약하였던 백우용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백우용은 바이올린에 재주가 있으나 재정적인 상황이 매우 열악했던 안병소의 사정을 알고 선교사 음악가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백우용이 부츠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경성 내에서 1920년대부터 실력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소문난 부츠의 존재를 음악가인 백우용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음악 인사들과 교류하였던 부츠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그를 중심으로 한 음악계의 네트워크가 매우 넓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아무튼 저렴한 비용으로 부츠에게 바이올린 교습을 받게 된 안병소는 이후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심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일본 유학 당시 부츠의 소개로 알게 된 영(Young) 선교사의 도움으로 클라인과 모기레프스키(Alexander Mogirevsky)의 사사를 받게 된다.<sup>81)</sup>

이 외에도 부츠는 국내 일본인과 다수의 한국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유학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고자 준비하는 한 일본 남성과 경성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본인 교회에서 연주하고 있는 일본 여성에게 오르간을 가르치고 있다. 또 교회음악을 공부하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한국인 여학생의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삼년째 바이올린을 지도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이들 젊은이들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으며...<sup>82)</sup>

30년대 중반부터 국내 거주 일본인 사역에 참여하였던 덕분에 한국인 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음악적인 영향력을 넓혀 갔던 부츠의 면모가 확인된다. 일본의 음악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부츠의 영향력이 컸던 이유가 단순히 미국인 음악가였기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 30년대까지 단연 돋보이는 음악성과 함께 다양한 활동, 여러 음악인들과의 교류가 미국인 음악가라는 ‘이점’을 더욱 극대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 4. 음악 실천의 이면 훑아보기

세 명의 여성 선교사들의 음악적 궤를 따라가다 보면 그 활동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 전문가였던 루츠, 부츠, 솔토의 활동은 당시의 음악적 필요가 매우 컸다는 점과 다양한 수요에 비해 전문 음악 선교사들이 많지 않았기에 여러 역할을 소화해야 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한국인들의 서구 음악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던 만큼 세 여성선교사는

81) 안병소, “成功의 門을 바라보고,” 『中央』 8 (1934/6)

82) Boots, “personal record,” June-December 1937.

교회, 학교, 무대, 출판물과 방송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소리적 텍스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루츠와 솔토, 부츠가 짧게는 10, 2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한국에 머물며 한국인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바로 음악을 교육하는 일이었다. 유치원 및 학교 교육에서 음악이 빼놓을 수 없는 교과였다는 점에서 선교사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과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평양의 주요 학교인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 숭의여학교 보육과 및 각종 성경학교와 신학교, 외국인 학교에 이르기까지 선교부가 관여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학교의 음악교육을 담당했다. 이들의 학교 음악교육의 영향은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확대되었다. 학교에서 음악을 익힌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와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단순히 교회의 봉사자를 키워내는 것을 넘어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했는데, 서북지역의 유일한 유치원 보육과에서의 교사 양성과 숭실전문학교 음악부원들의 개인 훈련 및 다양한 개인 레슨은 서양음악의 가교를 짓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다수의 1세대 음악가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토대는 이들의 활약 위에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들의 활동은 학교 담벼락을 넘나들었다. 단순한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무대를 통해 서양음악의 세계를 직접 실연하며 몸소 텍스트가 되었다. 이와 함께 1927년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은 음악적 기호 형성에 가장 파격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세 선교사는 방송과 음반 활동에도 참여하여 음향적 영향을 넓혔다. 이것은 일종의 교양 내지는 취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여학교에서 교사들을 양성하는데 일조했던 솔토의 경우, “한국인 교사 두 세 명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병원에 방문해 간호사들을 위한 노래 교실을 열었다.”<sup>83)</sup> 한국인 교사가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이자 간호업무로 지친 간호사들이 노래

83) Grace B. Soltau, “Dear Friends,” May 19, 1928.

를 배울 수 있는 취미 공간을 만들어 ‘음악하기’의 경험을 선사했던 것이다. 음악의 연행과 소비의 방식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를 겪게 되기 마련이지만, 학교 담벼락을 넘어 일상의 공간에서 음악을 스스로 재현하며 향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는 점에서 문화 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락과 취미로서 ‘주체적 음악하기’라는 미학적 개념이 서양음악이라는 이질적인 문화와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향유했을 뿐 아니라 연행자와 소비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기존의 체계를 전복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루츠와 부츠, 솔토는 이러한 활약으로 선교사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적잖은 인상을 남겼다. 세 선교사 모두 부인선교사라는 점에서 남편의 활동공간과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수요가 상당했던 평양과 경성 등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주어진 권한 이상이었다.<sup>84)</sup> 루츠의 경우엔 평양에서 음악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 그녀의 활약이 남편에 비해 돋보이고 있다고 보일 정도이다.<sup>85)</sup> 해방 후 재 내한한 루츠가 한국정부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해 그녀의 다양한 선교 사역이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만큼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86)</sup> 차재일, 김세형, 김동진 등 1세대 음악가들에 의해 이름모를 ‘여성선교사’가 아닌 ‘음악가 루츠’로 이름을 기억에 남길 수 있었던 만큼 음악적으로도 눈에 띄는 행보를 했으며 소리적 영향 또한

84) 당시 내한했던 여성선교사는 남편과 함께 온 부인 선교사, 남편과의 사별 후 정식 선교사로 파송 받은 기혼 여성선교사, 독신여성선교사 등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혼 여성선교사와 독신여성선교사에 비해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던 부인 선교사들은 활동이 제약이 클 수밖에 없었다.

85) *Korean Mission Field*는 필자였던 루츠를 이와 같이 소개한다.

86) 12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청각장애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면서 음악적 전문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Mrs. Lutz Cited by Premier,” *The Korea Herald*, 1967.01.11.

크게 미쳤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부츠 또한 앞서 살펴봤듯 일반인에게까지 잘 알려진 음악가였다.<sup>87)</sup> 이상만은 부츠를 초기 한국음악계에 공헌한 주요 인물로 꼽고 있는데, 그는 부츠가 “여자로서 지휘를 할 만큼 활발한, 그리고 통이 큰 음악가”라고 회고하면서 중앙악우회의 지휘를 맡으며 오케스트라를 열정적으로 이끌어갔다고 서술한다.<sup>88)</sup> 이외에 선교부 허가와 개인 독지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 전기오르간을 들여오기도 하는 등, 부츠의 활약은 당시 남자 선교사 못지않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었다. 이들이 비록 부인 선교사로서 공식적인 정책 결정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선교부 입장에서 음악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여성선교사의 중요성이 매우 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의 적극성에 따라 얼마든지 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선교사이자 ‘음악가’로 기억될 수 있었다.

요컨대, 세 명의 여성선교사들은 한반도에서 낯설었던 서양음악이 점차 음악 문화의 보편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위 일상적 음악문화 변화의 주체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당시의 음악교육과 다양한 연주 및 방송은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근대식 규칙을 지속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근대화시키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었다. 근대화에 대한 당시 한국인들의 열망은 서양음악을 일종의 근대적 보편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이들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음악적 소통과정은 단지 서양음악의 수용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근대적 이미지와 감각’<sup>89)</sup>을 수용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87) “勝洞基靑은 中止, 佛專만 예정대로,” 『동아일보』, 1932.09.16.

88) 이상만, “韓國音樂百年 逸話로 엮어본 裏面史 (27) 洋樂에 공헌한 외국인들,” 『경향신문』, 1986.05.08.

89) 유선영, “황색식민지의 근대성과 아메리카나이지제이션,”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돌베개, 2006), 278-283. 아메리카에 대한 한국인들의 동경을 주목한 이 글에서, 유선영은 “선교사와 미션스쿨, 교회 등등은 식민지주민들에게 허용된 가장 유용한 ‘근대 이미지들과 감각’의 교과서”였다고 해석한다.

## 참고문헌

## &lt;1차 자료&gt;

- “APPLICATION.” of Soltau, Grace Blanch Z.
- “Application\_ MRS. DEXTER NATHANIEL LUTZ (Ernice Lenore Harpster).”  
May 11, 1920.
- “Lutz, Lenore Harpster (Mrs. D. N. Lutz).” December 09, 1955.
- “Personal Record of Grace B. Soltau.” January 17, 1926.
- Boots, Florence E. S. “A Goodly Inheritance.” *Korea Mission Field* 34/4 (1938),  
73-75.
- Boots, Florence E. S. “Personal Record.” 1936-37.
- Boots, Florence E. S. “Personal Record.” June-December 1937.
- Boots, Florence E. S. “Praise and Devotion.” *Korea Mission Field* 34/4 (1938), 67.  
*Ewha College Catalogue*. Y. M. C. A. Press, 1930.
- Lutz, Ernice L. H. “Dear Friends.” February 09, 1928.
- Lutz, Ernice L. H. “Dear friends.” November 28, 1930.
- Lutz, Ernice L. H. “personal report.” 1942.
- Lutz, Ernice L. H. “Unto The Least Of These (Kindergarten Work).” *Korea  
Mission Field*, (1925), 69-70.
- Lutz, Ernice L. H. “Music in Korea-Old and New.” *Korean Mission Field*,  
(1938) 76.
- Soltau, Grace B. “Dear friends.” June 19, 1925.
- Soltau, Grace B. “Dear friends.” March 10, 1927.
- Soltau, Grace B. “Dear friends.” May 19, 1928.
- Soltau, Grace B. “Letter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June 19, 1925.
- Soltau, Grace B. “Personal Record.” January 15, 1927.
- Pengyang Foreign School, *The Master Kulsì*. 1934.

Pengyang Foreign School, *Pengyang Foreign School*. 1934-35.

W. Otto Miessner, *The Melody Way Course: Class Piano Instruction*. Chicago: Miessner Institute, 1924.

W. Otto Miessner, *The Melody Way to Play the Piano*. Chicago: Miessner Institute, 1924.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三千里』, 『中央』, *The Korea Herald*

## <2차 자료>

교육윤리연구실 편, 『한국 근현대 교육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강선미. 『한국의 근대초기 페미니즘 연구』. 서울: 푸른사상, 2005.

김사랑. “내한선교사의 음악활동에 관한 연구.” 예술전문사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03.

김성은. “엘리스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의 선교활동과 한국여성교육.” 『역사학연구』 48 (2012), 175-199.

김성은. “한말 일제시기 엘라수 와그너(Ellasue C. Wagner)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41 (2014), 115-152.

김승태. 『내한선교사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김일심. “내한 여성선교사의 음악활동에 관한 고찰.” 예술전문사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07.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류대영. “매티 노블(Mattie W. Noble)의 일지: 한 부인 선교사의 삶과 여성영역(Women`s Sphere).” 『동방학지』 160 (2012), 211-253.

박보경. “The Great Century에 있어서의 여성선교사의 사역과 영향.”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0.

박해진. “1920~30년대 미북장로회선교부 관할 중등학교 운영과 한국인 인계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송실인문사편찬위원회 편. 『인물로 본 송실 100년』. 송실대학교출판부,

- 1992.
- 유선영. “황색식민지의 근대성과 아메리카나이제이션,”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돌베개, 2006, 278-283.
- 윤정란. “19세기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 -여성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史林』 제34호 (2009), 105-134.
- 이상금. 『한국 근대 유치원 교육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 이윤미. “식민지 초기 여성선교사의 교육 활동.” 『한국교육사학』 29/2 (2007), 87-118.
- 정미현.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의 선교 사역과 여성의식.” 『동방학지』 171 (2015), 223-251.
- 허지연. “이화여자전문학교 선교사 음악교사 연구: 연합감리회아카이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음.악.학』 25 (2013), 21-123.
- 허지연. “미국인 선교사와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한국 근대 양악사의 ‘한국 뛰어넘기.’” 『음.악.학』 23 (2012), 89-124.
- 山内文登(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9.
- Shirley S. Garrett, “Sisters All. Feminism and the American Women’s Missionary Movement,” in *Missionary Ideologies in the Imperialist Era: 1880~1920*, eds. Torben Christensen and William R. Hutchison(Aarhus, Denmark: Aros, 1982), pp. 221~230.
- Rosemary Skinner Keller, “Lay Women in the Protestant Tradition,” in *Women and Religion in America*, vol. 1, eds. Rosemary Radford Ruether and Rosemary Skinner Keller(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pp. 242~253.
- “기독교 대안 감리회.” <https://kmc.or.kr/dic-search>
-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PC(USA).” <http://tb.history.pcusa.org/dbtw-wpd/Textbase2/Missionary>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ttp://catalog.gcah.org:8080/exist/publicarchives>

“오벌린대학.” <http://new.oberlin.edu/>

“노스웨스턴대학.” <http://www.music.northwestern.edu/>

## Abstract

**Foreign Missionary, Women, and Musician in Korea:  
focused on the 1920-30's**

SaRang Kim

As a case study on musical activities of foreign missionaries, this paper traces life of three women missionaries as musicians. Ernice Lenore H. Lutz (1886-1979), Florence E. S. Boots (1896-?), Grace Blanch Z. Soltau (1886-?) that entered Korea in 1921 were American women missionaries. All of them studied in music at University and had earned their profession of music based on their career experience. At 1920-30's, Korean students' interest in Western music was so great that the need for professional music teachers also increased. Therefore, the influence of the three missionaries increased.

Their musical activities is various included in kindergarten teacher training, promotion of various choir and chorus, various stage performances, and orchestra foundation, education in school and church as well. In addition, they involved in recording and helped Koreans study abroad to Japan and America. These activities provided us important pieces of the early western music history in Korea. The activities of female missionaries, who acted as a symbol of educational and audiovisual civilization in the daily life of Koreans, formed the basis for the change of music culture landscape.

Keywords: women missionary, professional musician, Lutz, Boots, Soltau, modern era, western music, normalizat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0월 30일	2016년 11월 15일 - 12월 10일	2016년 12월 15일